

참고자료:

- [1] 김익수, 「사들이는 중국, 팔리는 한국-중국기업의 글로벌화와 한국기업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2005. 4
- [2] 김화섭, 「중국의 해외직접투자(走出去) 전략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4. 4
- [3] 「關於電子信息產業“走出去”的思考」, 『中國電子報』, 2005. 6. 16
- [4] 「中國企業“走出去”有關政策-境外投資和上市」, 『中國企業報』, 2005. 1. 19
- [5] 「中國通信業携手“走出去”戰略分析」, 『通信世界』, 2004. 8. 16
- [6] 중국 信息产业部 홈페이지 <http://www.mii.gov.cn>
- [7] 중국 商務部 홈페이지 <http://www.mofcom.gov.cn>
- [8] 중국 國家稅務總局 홈페이지 <http://www.chinatax.gov.cn>
- [9] 중국 進出口銀行 홈페이지 <http://www.eximbank.gov.cn>
- [10] 중국 國家統計局 홈페이지 <http://www.stats.gov.cn>
- [11] 중국 出口信用保險公司 홈페이지 <http://www.sinosure.com.cn>
- [12] CCID(賽迪網資訊中心) 홈페이지 <http://www.ccidnet.com>
- [13] sina.com 홈페이지 <http://www.sina.com.cn>
- [14] ChinaByte 홈페이지 <http://www.chinabyte.com>

베트남 통신시장 및 주요 통신사업자 현황

국제협력연구실 주임연구원 홍승연
(T. 570-4084, syhong@kisdi.re.kr)

1. 베트남 통신시장 현황

1990년대 초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베트남의 정보통신산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베트남이 개방정책을 활발히 수행하면서 매년 4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급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1997년에 시장규모가 3억 달러를 넘어섰으나, 1998년 아시아의 금융위기로 인해 베트남의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서 1998년 2억 달러, 1999년 2억 1천만 달러 수준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성장세에 들어서고 있어 절대적인 시장규모에서는 아직 미성숙한 시장이지만 2000년 이후 고성장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고성장으로 베트남은 2003년에 4.4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이루었으며, 2007년에는 6억 7,500만 달

러로 매년 14.4%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베트남 통신시장 발전 현황

년도	총인구 (백만)	총GDP (10억US\$)	유선전화 가입자수 (천명)	100명당 유선전화 가입자	유선전화 회선수 (천회선)	100명당 유선전화 회선수	이동전화 가입자수 (천명)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수	10,000명당 인터넷 사용자수	100명당 PC대수
2001	81.1	33	4,301	5.30	3,050	3.8	1,251	1.5	124.45	0.86
2002	81.3	35	5,832	7.18	3,930	4.8	1,902	2.3	184.62	0.98
2003	81.4		7,144	8.78	4,402	5.4	2,742	3.4	430.10	0.98
2004	82.6	48			5,830	7.2	4,634	5.6		

자료: ITU(2001~2003년도), Paul Budde(2004년도)

베트남은 2000년도에만 새로운 유선전화 가입자가 40만 명으로 총 서비스 이용자가 250만 명에 이르렀으며, 2001년도에는 430만 명에 달했다. 유선전화 보급률도 1993년도에 0.37% 정도였던 것이 2001년도에는 3.8%에 이르렀으며, 2004년 12월까지 580만 명이 유선서비스를 이용, 7.2%의 통신보급률에 이르게 된다. 베트남에서의 이동통신 서비스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년 동안 60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인다. 즉 1999년 30만에서 2003년 270만 이상의 가입자로 높은 성장률을 보여 3.4%의 보급률을 보여준다. 이동통신 시장은 연간 30%의 성장률을 보여 2003년 한 해 동안만 70만이 증가하였으며, 2004년에는 연간 67%의 성장률을 보여 190만이 증가하여 460만에 이르며 5.6%의 보급률을 보였다. 베트남 인터넷 가입자 수의 증가는 2002년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25만으로 베트남의 61개 도시 및 지방에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2003년 또다시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여 베트남 전체 인터넷 가입자 수는 44만3천명에 이르고 2004년 말까지 베트남에서의 인터넷 가입자 수는 200만을 돌파하게 되었다.

베트남에서의 통신부문 발전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통신 시스템의 경쟁시스템 미비와 베트남에 적합한 시장 환경 조성을 가로막는 엄격한 규제라 할 수 있겠다. 통신부문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베트남 시장 진입을 위해서 BCC¹⁾의 형태로만 가능하며 합작투자 형태로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해왔으며, 특히 최근 베트남의 WTO가입 등 시장개방 노력의 일환으로 J/V(합작회사) 형태로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베트남에서의 외국인 투자유치

1)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s

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표 2> 베트남 정보통신 발전개요(1993~2004)

1993년	베트남 우정통신청(DGPT)의 국영기업으로 베트남 우정통신공사(VNPT) 창립
1995년	고지대 지역 70% 및 산악 지역 10% 유선전화 연결
	90% 전화국으로의 자동화 중계선 구축
	90% 디지털화 비디오폰(화상폰) 도입 Song Be 지역 내, 新 위성기지국 구축
1996년	700,000 회선 설치
	5,000여개의 국제전화 채널 구축 Saigon P&T 기초 서비스 시작
1997년	150만개 회선 운영(2% 통신보급률)
	인터넷 서비스 개시
1998년	Viettel과 Saigon Postel 1999년도 시작될 switche 설치 승인 정부 우정통신부에 의해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설치(케이블, 위성TV, video-on-demand 서비스 제공)
2000년	250만 회선 유선 전화 서비스 제공(3.1% 통신 보급률)
	780,000 휴대전화 가입자 달성(0.96% 시장진입)
	인구 100명 당 17개 유선전화 회선 달성(도시지역)
	인터넷 가입자 100,000명 달성 자동화 전화국 연결 중계선 100% 구축 달성 VNPT 연 매출액 10억 US\$ 달성
2001년	305만 고정 유선전화 회선 구축(통신보급률 3.8%)
	125만 휴대전화 가입자 달성(1.5% 시장진입)
	Saigon Postel, VNPT 개입 없이 기초 텔레콤 라이선스 발급
	정부 정보통신 부문에 대한 "New 10-year 계획" 발표
2002년	우정통신청(DGPT)의 우정통신부(MPT)로의 승격
	390만개 유선 전화 회선(통신보급률 4.8%)
	190만 휴대전화 가입자 달성(2.3% 시장진입)
	250,000 인터넷 가입자 달성
	인구의 91% 유선 전화 서비스 이용 달성
	6,000 dong(베트남화폐단위) 정보통신 네트워크 부문 투자 달성
	Hanoi Telecom, full service telco로 라이선스 취득

2003년	440만 유선 전화 회선 구축(통신보급률 5.4%)
	270만 휴대전화 가입자 달성(3.4% 시장진입)
	정보통신 부문 관세 인하
	443,000 인터넷 가입 달성
2004년	인구의 93% 유선 전화 서비스 이용 달성 5천 8백만개 유선 전화 회선 구축(통신보급률 7.2%)
	460만 휴대전화 가입자 달성(5.6% 시장 진입)
	170만 인터넷 가입 달성
	인구의 95% 유선 전화 서비스 이용 Viettel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 라이선스 취득: GSM 플랫폼 선정됨

자료: Paul Budde Communication based on industry data

2. 주요 통신 사업자 현황

베트남은 통신정책을 비롯한 산업화 정책에 있어 개혁 개방을 추구하는 개혁파와 보수파의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어 지속적인 개혁 개방정책 추구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보수파 간의 대립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 및 외국계회사의 진입기회가 그만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베트남의 통신서비스 시장은 VNPT에 의해 90%이상 독점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통신서비스 시장을 경쟁 환경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경쟁력있는 통신시장 서비스 사업자들의 진입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들을 시행함으로써 2010년까지 이러한 새로운 진출자들이 40~50%의 시장 비중을 차지하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트남 통신시장은 경쟁시장 환경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2005년 1월, 베트남 우정통신부(MPT)는 베트남 통신시장 발전을 위해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부분에서 경쟁도입을 이루기 위한 시장 개방을 표명하였다.

베트남에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사업자들을 살펴보면 먼저 국내 유선전화 서비스는 VNPT, Viettel, ETC, SPT, Hanoi Telecom 등 5개의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제전화서비스의 경우 VNPT, ETC, Viettel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동전화서비스의 경우 VNPT의 Vinaphone과 MobiFone, S-Fone 및 Viettel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 통신시장의 주요 사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유선통신사업자

1) VNPT(Vietnam Post and Telecommunications)

VNPT는 국영통신사업자(제1사업자)로 1993년 베트남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995년 7월 DGPT(우정통신청)로부터 분리 독립하였다. 현재 베트남 전역의 모든 통신 및 우편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으며, 2003년 현재까지 1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8백만 이상의 가입자로 시장점유율 90.54%를 기록하고 있다.

2) Viettel(the Military Electronic and Telecommunications Co.)

Viettel 또한 정부소유의 통신사업체(제2사업자)로서 1995년 베트남 국방성 산하의 METC(Military Electronic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y)에 대해 통신사업허가를 부여하였는바 후에 Viettel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VNPT의 경쟁 업체로 가장 유력하고 잠재력 있는 기업으로 2003년 총 매출은 6,4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Viettel은 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다낭, 동나이 등 베트남의 40개 지방과 도시에 GSM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 유선 서비스에 2천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02년 9월부터는 베트남 국내 15번째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개시했다.

3) Saigon Posts and Telecommunications(Saigon Postel, SPT)

1995년 8월 국내 및 국제통신허가를 취득한 제3 통신사업자로서 호치민시가 국영 회사, 경찰, 군,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2000년부터 장거리 통신 서비스와 국제통신 서비스 제공을 개시하였고, 2000년 9월에는 한국의 합작법인 SLD Telecom²⁾과 BCC 형태의 경영합작계약을 체결하여 CDMA 방식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 가입자가 7만에 달한다. 2003년 총 매출은 4,46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호치민시 지역 유선전화 서비스에 있어 2만 5천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나. 이동통신사업자

1) MobiFone

VNPT와 스웨덴의 Comvik International Vietnam AB의 BCC에 의해 1993년도에 설립되었다. GSM 방식 상용서비스를 제공하며 GSM 900 표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국의 사업자에게 망을 임대하여 주요도시 및 85개 지역에서 망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8년 14만8천명의 가입자였던 것이 2005년 4월 현재 235만 명의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2) SLD Telecom은 한국의 SK Telecom, LG전자 및 동아 일렉콤 3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베트남의 SPT와 BCC형태로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

2) Vinaphone

1996년 VNPT의 계열사로 설립된 MobiFone과의 경쟁사로 GSM방식의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9년 호주의 Telstra와 국제전화 로밍 서비스 제공을 개시하였다. 1998년 6만 명의 가입자였던 것이 2005년 3월 현재 260만 명의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3) S-Fone

한국의 SK Telecom, LG전자, 동아 일렉콤 3사의 콘소시엄인 SLD와 Saigon Postel(SPT) 간의 BCC에 의해 설립되어 2003년 7월부터 개통되었다. CDMA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03년 3만 명이었던 가입자 수가 2005년 4월 현재 23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 100만 명을 목표로 베트남 국내 3번째 이동통신 사업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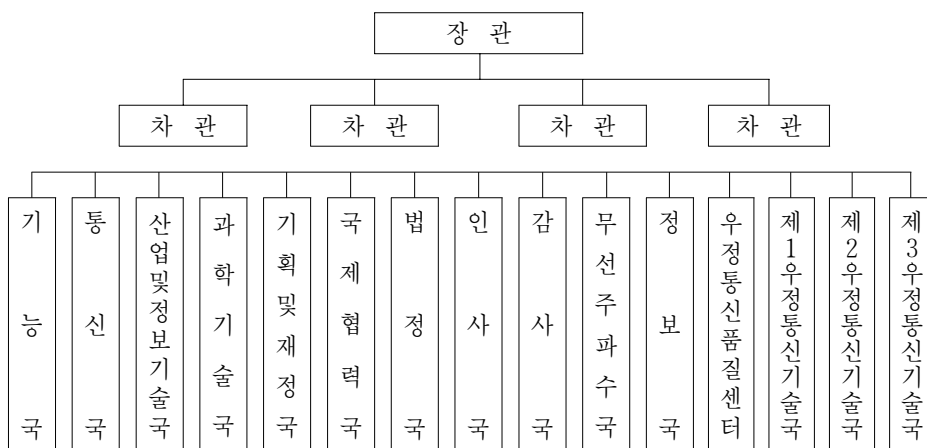
4) Viettel

2002년 8월 Viettel은 하노이, 호치민, 다낭에서의 이동통신 부분 사업으로의 확장계획을 발표하고 2004년 9월부터 GSM방식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2004년 말까지 11만9천 명의 가입자 수로 시작하여 2005년 4월 현재 30만 가입자를 보유하기에 이른다.

3. 향후 전망

베트남은 통신부문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개혁 노력을 지속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우정통신청(DGPT)과 우정공사(VNPT)로 이원화되었던 조직을 통합하여 2002년 8월 우정통신부(MPT)로 승격, 우편, 통신관련 업무, 인터넷, 전자통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베트남 우정통신부(MPT) 조직도〉



정보기술 분야를 총괄하여 관장하고 있다. 우정통신부의 조직으로는 통신국, 과학기술국, 무선주파수국, 우정통신기술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정통신 정보기술 전략연구원, 베트남 인터넷센터, 정보기술센터 등 5개의 직속기관을 두고 있다.

이러한 조직적 기반 가운데 2004년 11월, 베트남의 우정통신 정보기술 전략연구원인 NIPTS (National Institute of Posts and Telematics Strategy)에서는 베트남이 2020년까지 ASEAN 국가들 중에서 정보통신 리더 그룹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NIPTS에서는 2010년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18~20%를 포함하여 32~35%의 통신보급률을 이루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까지 초고속 인터넷 30%를 포함하여 50% 정도까지 인터넷 이용률을 높이고, 인터넷 가입자 또한 13%까지 이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년까지 베트남은 통신 시장 개방을 통해 베트남의 통신보급률 22% 및 12%의 이동통신 보급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도 110만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트남의 통신시장 개방은 ASEAN과 APEC 등의 지역 협력기구의 회원국으로서 받는 압력과 WTO 가입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2001년 10월, 베트남 정부는 2010년까지 정보통신 시장의 50%를 개방함으로써 그 동안 이 분야에 대한 국영 기업의 독점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을 승인했으며, 2005년까지 새로운 기업이 통신 시장의 약 25~30%의 시장 점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점차 40~50%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계획은 또한 베트남 통신 인프라를 아시아 지역 내 선진국 수준만큼 구축하고자 하며,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40~60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자료:

- [1] 동남아 소프트웨어시장 조사보고서, 조사연구 01-07, KIPA, 2001
- [2] 베트남 정보통신현황, ICA, 2004
- [3] Vietnam-Key Statistics, Telecommunications Market and Regulatory Overview, Paul Budde Communication, 2005
- [4] Vietnam-Mobile 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Paul Budde Communication, 2005
- [5] www.itu.int
- [6] www.mpt.gov.vn